

#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의미 처리에 관한 연구 : 일반인과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문영선\*, 김동휘\*\*, 편성범\*\*\*, 황유미\*\*\*\*, 정재범\*\*\*\*\*, 남기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삼육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Lexical Status of Main and Supportive Verbs in Mental Lexicon

\*Youngsun Moon, \*\*Donghwui Kim, \*\*\*Sungbum Pyun,  
\*\*\*\*Yumi Hwang, \*\*\*\*\*Jaebun Jung, \*\*\*\*\*Kichun Nam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영어와 달리 국어는 보조용언이 조동사의 역할을 담당하여 화자의 심리적인 상태나 상(想)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같은 어휘가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그 의미적 차이는 뚜렷하다. 특히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는 어휘적 의미가 대부분 사라지고 추상적 의미만 남기 때문에 본용언과의 관련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동일한 영역에서 처리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동일한 심성어휘집을 사용한다면 보조용언으로 쓰인 환경에서도 본용언의 어휘적 의미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피험자와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정상인 피험자를 대상으로는 SOA가 짧은 조건과 긴 조건에서 각각 보조용언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살펴보고,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는 정상인 피험자와 비교해서 어떤 양상으로 보조용언을 처리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상인 피험자는 SOA가 짧은 조건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처리하였다. 즉 보조용언의 어휘적 의미가 본용언과 마찬가지로 SOA가 짧을 때는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SOA가 길어지면 보조용언은 문맥 정보로 인해 어휘적 의미가 억제되어 본용언과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정상인 피험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실어증 환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명칭성 실어증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나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본용언보다 어휘적 의미가 다소 불안정하게 활성화됨을 보였다. 그러나 이해성 실어증환자의 경우,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어휘적 의미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 정상인과는 다른 언어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통문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완전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자립용언에 뒤에 붙어서 그 서술어의 의미를 돕는 기능을 하는 용언을 의존용언, 또는 보조용언이라 한다. 국어에서는 보조용언은 일반적으로 '-아/-어, 게, 지, 고'의 용언 활용형에 후행하여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를 조동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용언의 기본 의미가 아닌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조용언 '버리다'의 경우, 이기동(1976)에서는 본용언의 뜻이 비유적으로 확대되어, '기대의 어긋남'과 '부담의 제거'라는 뜻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가버렸다'라는 표현은 누가 떠났다는 사실 이외에, 그 사실을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며, 또 그 사실이 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

는가 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용언은 일반적으로 본용언의 뜻에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보조용언이 용언이 계속하여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연결구조를 갖는 구성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V1+V2'구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용언이 계속하여 연결되는 구조를 접속구성과 의존구성, 복합구성으로 나누고 이중 보조용언은 의존구성을 보인다고 한다. 의존구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V1은 어휘적인 의미를 갖고 V2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먹어버리다'와 '들어가다'를 비교할 때, 후자에 비해 전자의 '버리다'는 그 본래 의미가 많이 추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들어가다'를 복합구성으로 보는 반면, '먹어버리다'는 의존구성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두개의 용언이 보조적 연결어미에 의해 결합되었다는 형태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 '먹어버리다'와 '들어가다'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V1+V2'가 자립용언이 거듭되는 접속구성과 자립용언과 의존용언으로 이루어진 의존구성, 그리고 두 용언이 통합되어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는 복합구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의미를 우선하는 것은 그 분별을 모호하게 한다. 또한 의미가 추상화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추상화된 의미가 본래 의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나아가 추상화된 의미를 파악할 때 본래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추상화된 의미가 본래 의미와 독립적으로 선택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까지는 보조용언의 용어 선택, 정의, 그리고 범위가 주된 연구 대상이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조용언의 통사적인 연구와 더불어 의미적 연구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보조용언의 연구 방향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조용언을 독립된 문법 범주로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보조용언을 양상과 시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중 보조용언을 양상 요소로 본 대표적인 견해로 김용석(1983)이 있다. 김용석은 보조용언과 본동사를 각각 하나의 동사로 보거나 하나의 동사구성으로 보는 것은 의미상 기능을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조용언을 양상(modal)을 나타내는 특수요소로 간주하였다. 차현실(1984), 김홍수

(1983), 우형식(1986), 성낙수(1987)에서도 보조용언을 양상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달리 옥태권(1988)은 보조용언 가운데 일부를 상을 표시하는 요소로 보고, 상이 본동사와 조동사의 상 자질의 결합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특히 황병순(1988)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복합되면서 상호간에 선택하는 시상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보조용언이 갖는 시상적 의미를 규명하려 하였다. 한편 1990년에 들어서면서 보조용언의 의미를 원형이론에 비추어 밝혀보려는 연구도 나타난다. 류시중(1995)에서는 원형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보조용언의 범주와 그 구성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 연구 성과를 볼 때, 보조용언은 본용언과는 구분되는 의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어와 같이 조동사가 따로 없는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이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따라서 보조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는 다른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형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과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이다. 즉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본용언의 의미가 어느정도 개입되느냐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 가능성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형태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이미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버리다'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는 이미 본용언의 의미가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다. 즉 보조용언으로서의 '버리다'는 '완료'라는 상적 의미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본래 뜻인 '버리다'의 의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에 따르면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동음이의어처럼 형태적으로만 다를 뿐, 서로 다른 범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조사의 경우는 이러한 가능성이 좀더 뚜렷하다. 국어의 특수조사는 개별 어휘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문법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형태와 공유된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조사 '부터'에 대하여 고대의 차자표기 자료부터 중세의 이두, 언해 자료를 통해 '부터'가 어휘태소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부터’가 이와 관련된 어휘형태소와 의미적으로 심성어휘집에서 공유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조용언도 본용언에서 파생된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공유된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보조용언이 심성어휘집에서 본용언과 다른 의미 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동일한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조용언의 의미는 본용언을 거쳐서 해석된다. 즉 일차적으로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된 다음, 구체적인 문맥 의미들이 기본 의미로부터 파생된 의미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본용언의 의미를 토대로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면, 보조용언이라는 독립범주를 설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어휘도 문맥에 따라 추상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추상화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어사전에서 보조용언의 의미를 본용언의 표제어 아래 기술하므로 이는 두번째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즉 보조용언 ‘버리다’도 사전에서는, 본용언 ‘버리다’와 동일한 표제어 아래 기술되어 있다. 이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마치 동의어와 같이 의미적으로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조용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형태적인 정보처리와 의미적인 정보처리 중 어느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 지 알아보고, 국어 보조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같은 의미경로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실험1에서는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동일한 의미가 점화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만일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본용언의 기본 의미가 점화된다면, 이는 두번째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반면에 점화효과가 없다면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다른 독립적인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험2에서는 정상인과 달리 실어증 환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준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이해성 실어증환자와 명칭성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실험1

실험1은 한국어의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어떠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본용언 때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활성화되는지를 의미점화 어휘판단과제(semantic primed - lexical decision task)를 통해 알아보았다. 만일 보조용언을 쓰일 때도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된다면, 의미점화 어휘판단과제에서 점화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보조용언이 본용언과는 다른 독립된 심성어휘집을 차지한다면 그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우선 동일한 용언이 각각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문장을 준비하였다. 즉 하나의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인 조건과 보조용언으로 쓰인 조건으로 나누어, 각각의 용언과 의미적 관련성이 있는 명사를 어휘판단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총 9개의 용언 ‘가다(여행), 오다(도착), 두다(보관), 버리다(쓰레기), 내다(요금), 주다(선물), 보다(관광), 대다(손), 지다(노을)’를 사용하였으며, 괄호 속의 단어는 각각의 용언과 의미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단어목록이다.

- ㄱ. 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
  - 여행(2313) / 본용언 관련조건
- ㄴ. 어머니의 초상화가 거의 완성되어 **갔다**.
  - 여행(2313) / 보조용언 관련조건
- ㄷ. 철수는 오늘 아침 늦게 도서관에 **갔다**.
  - 점심(2323) / 본용언 무관련조건
- ㄹ. 철수는 위문편지를 지금 거의 읽어 **갔다**.
  - 주민(2311) / 보조용언 무관련조건

우선 ㄱ과 ㄴ처럼 본용언으로 쓰이는 조건과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조건에서 개별 문장을 읽고 용언과 의미적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를 어휘판단하는 과제를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비교하기 위해 ‘여행’과 동일한 어휘빈도를 가진 단어 중에서 용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를 어휘판단하는 과제 ㄷ과 ㄹ을 준비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변인으로는 본용언으로 쓰인 조건과 보조용언으로 쓰인 조건, 어휘관련조건과 무관련조건, 그리고 SOA가 150ms인 조건과 1000ms인 조건이다. 만일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심성어휘집을 공유한다면 보조용언을 읽고 바로 어휘판

단과제를 할 경우,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SOA가 길어질 경우, 본용언의 의미는 억제되고 문맥에 맞는 의미가 선택될 것이므로 이 경우 본용언의 의미는 SOA가 150ms 때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독립된 심성어휘집에서 처리가 된다면 SOA와 상관 없이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본용언의 의미는 활성화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 방법

### 피험자

고려대학교 재학생 82명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SOA가 150ms인 조건에서는 63명이, SOA가 1000ms인 조건에서는 총 1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 실험 재료

총 9개의 용언이 각각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쓰이는 문장을 18개를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비교하기 위해 목표자극단어와 동일한 빈도를 갖는 어휘를 연대빈도수사전에서 찾아 앞의 조건과 동일한 문장 18개를 만들었다. 여기에 filter로 36개의 문장을 첨가하여 총 72개의 문장을 보고 어휘 판단(lexical decision)하는 과제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4~6어절 정도의 단문이였으며, 문장의 길이는 두 번에 나누어서 화면에 제시될 수 있게 조절하였다.

또한 동일한 목표자극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을 두 번 해야하기 때문에 반복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72개의 문장을 두 개의 set로 나누었다. set1에서는 본용언 관련조건과 보조용언 무관련조건을, set2에서는 보조용언 관련조건과 본용언 무관련조건을 묶어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별피험자는 각각 36개의 문장을 읽고 어휘판단하였다. set1과 set2 모두 SOA가 150ms인 조건과 1000ms인 조건으로 나누었으며, 한 피험자는 하나의 조건에 관해서만 반응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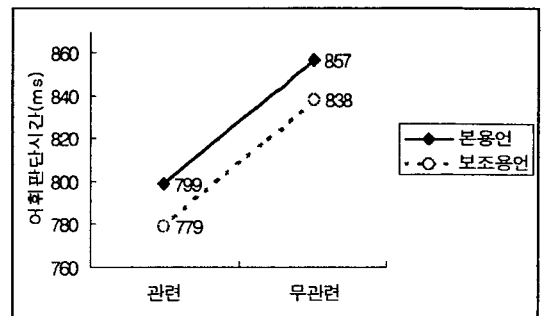
### 실험 절차

실험에 사용된 과제는 목표 자극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이다. 피험자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실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습 시행을 실시한 후 보충 설명을 하였다. 피험자에게 각 시행에서 화면 중앙에 점화 자극으로 나타난 문장을 읽고 키보드를 누르면, 목표 자극 단어에 대한 단어·비단어 판단을 하게 하였다. 단어와 비단어 판단은 미리 '단어키'와 '비단어키'를 지시한 후, 가능한 빠른 속도로 누르게 하였다. 피험자에 따라 단어키를 무선적으로 서로 바꾸었다. 그리고 어휘판단이 끝나면, 점화 자극으로 나타난 문장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앞서 나온 점화 자극 문장을 눈여겨 보아야만 했다. 점화 문장이 나타나고 목표 자극 단어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50ms와 1000ms로 고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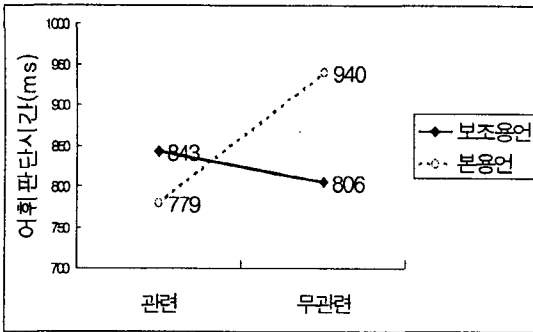
## 결과 및 논의

<그림1>에서는 SOA가 150ms인 조건에서 정상인이 용언과 관련된 어휘를 판단하는 평균시간을 제시하였다. <그림2>는 같은 조건에서 SOA만 1000ms로 바뀌었을 때, 정상인이 어휘판단하는 시간에 대한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 SOA가 150ms에서의 정상인 용언관련 평균어휘판단시간(ms)

<그림1>을 보면, 용언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용언과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에 대해 어휘판단하는 시간이 무관련조건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 $F_{(1,29)}=8.531$ ,  $P<0.007$ ). 이는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본용언의 의미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림2> SOA가 1000ms에서의 정상인 용언관련 평균어휘판단시간(ms)

그러나 <그림2>에서는 SOA가 길어지면 본용언 일 때만 점화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용언 때와는 달리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는 오히려 무관련조건인 어휘판단시간이 빨라졌다. 유의도 분석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_{(1,8)} = 6.065$ ,  $P < 0.039$  ). 이는 SOA가 1000ms일 때는 용언의 기본의미가 소멸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림1>의 결과,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SOA가 짧을 경우 목표자극 단어를 어휘 판단하는 시간이 비슷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용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1>을 통해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용언의 기본적 의미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동일한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에 공유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론이다.

하지만 <그림2>는 SOA가 길어질 때, 보조용언의 경우 용언의 기본의미가 활성화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림2>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일차적으로 단어의 형태를 보고 이와 관련된 기본의미가 먼저 활성화되지만 이후 문맥적 정보가 추가되면서 단어의 기본의미가 문맥적 정보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즉 SOA가 길어질 경우, 문장의 문맥 정보가 용언의 기본의미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SOA가 짧았을 때 활성화된 기본의미가 <그림2>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실험1의 결과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동일한 심성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조용언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나, 일차적으로는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보조용언의 의미가 바로 점화되지 않고 본용언의 형태가 저장되어 있는 심성어휘집에 접속한 뒤, 문맥을 통해 보조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때 본용언의 의미가 억제되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의미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 실험2

실험1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동일한 심성어휘집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밝혔다. 실험1에서 얻은 결과는 정상인의 정보처리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이해성 실어증환자와 명칭성 실어증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2를 준비하였다. 즉 언어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실험2의 목적이다. 실험2에서는 SOA가 150ms인 조건만을 사용하였다.

## 방법

### 피험자

실험2에서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 JYS와 명칭성 실어증 환자 SDK가 참여하였다. 환자 JYS는 1998년 9월 27일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와 언어장애를 주증상으로 한 뇌졸중으로 경희대학교 한방재활과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MRI)에서는 T<sub>1</sub>WT 및 T<sub>2</sub>WT 영상에서 모두 좌측 대뇌반구 중 중뇌동맥의 하부분지에 의해 혈류공급을 받는 대뇌피질 영역에 고신호강도(high signal intensity)를 보여 급성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다. 뇌경색으로 인해 손상이 나타난 부위는 좌측 외측 뇌실(lateral ventricle)의 후각부(posterior horn)에서 후방부 측두엽 피질까지 주로 경색이 나타났으며, 두정엽의 후하방과 측두엽의 후상방에 해당하는 각회전(angular gyrus) 주변까지 침범하는 소견을 보였다. 함께 시행한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MR angiogram)에서는 좌측 중뇌동맥이 좁아진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우측 상하지에 운동능력의 소실은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진찰 소견에서도 특이할 만한 운동 및 감각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JYS는 1998년 11월 15일에 1차 보스톤 실어증 진단검사 (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BDAE)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전형적인 이해성 실어증(Wernicke's aphasia) 환자로 판별되었다. 1999년 4월 6일 시행한 어휘판별검사 (discrimination test)에서는 같은 발음 20 개중 8개에서 가능하였고, 다른 발음에서는 4개만 가능하였다. 이후 1999년 7월 7일 추적 시행한 보스톤 실어증 진단검사에서는 운율선 6/7, 발화의 길이 6/7, 조음의 민첩성 6/7 로 유창성 지표의 특점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말하기에서는 첨가어나 착어가 많이 감소하여 고빈도의 반복은 6/8의 점수를 보였다. 쓰기와 읽기 영역은 기초단계 정도에서 가능하여 문장단위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였다. 이름대기에서는 모든 하위항목이 60% 이상의 득점을 보였으며 청각적 이해력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65% 이상의 득점을 보여 많은 향상을 보였으나, 유창성에 비해 청각적 이해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해성 실어증의 양상을 보였다.

환자 SDK는 57세의 남자로 평소 고혈압의 병력은 없었으나 1995년부터 당뇨병으로 투약중이었으며, 1998년 8월 1일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중심 반란원 (centrum semiovale), 뇌실주위 백질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미핵 두부(caudate nucleus head), 내포의 전방 (an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e), 기저핵(basal ganglia), 도 (insula), 측두엽 전방(anterior tip of the temporal lobe)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과 함께 출혈성 전이 (hemorrhagic transformation)가 함께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 뇌동맥 조영술에서는 좌측 경동맥, 전뇌동맥과 중뇌동맥의 분절에서 혈관이 좁아진 사실이 관찰되었다.

환자 SDK는 급성기 약물치료후 상태가 안정되어 1998년 8월 12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서 한국어판 Western Aphasia Battery (WAB)을 이용해 1차 언어평가를 시행한 결과, 경피질성 감각실어증(transcortical sensory aphasia)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1일 시행한 추적검사에서는 청각 이해력이 8/10점으로 호전되었으며 이름대기에서도 6/10점으로 지난 검

사에 비해 많이 호전되어 anomic 실어증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발병후 8개월이 지난 1999년 3월 8일 다시 시행한 3차 언어평가에서는 정도의 anomic aphasia로 진단되었다.

### 실험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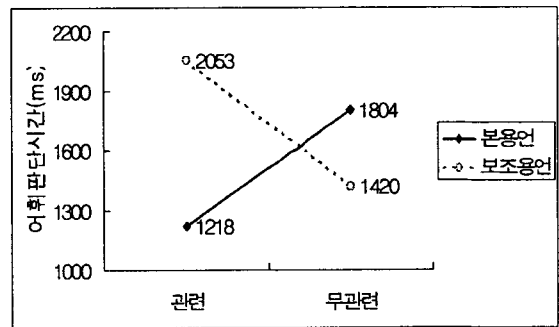
실험1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하다. 단 같은 피험자가 set1과 set2를 다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씩 간격을 두어, set1과 set2 실험을 하였다.

### 실험 절차

대체로 실험1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SOA150ms만 사용. 그러나 환자들의 편마비 증세로 인해 실험 보조자가 옆에서 문장이 넘어는 부분에서 키보드를 대신 눌러주었다. 환자는 화면에 나타난 문장을 읽고 다음에 나타나는 목표 자극 단어가 단어인지 아닌지만 직접 판단하였다. 환자 S의 경우 오른손이 불편한 관계로 왼손의 중지와 검지로 단어키와 비단어키를 누르게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이해성 실어증 환자 JYS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그림3>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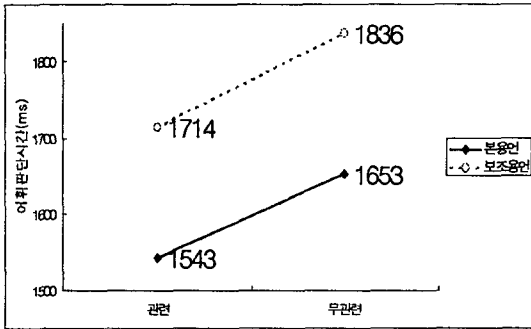


<그림3> 이해성 실어증 환자 JYS의 용언관련 평균어휘판단시간(ms)

<그림3>을 보면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본용언으로 쓰일 때, 관련단어를 어휘판단하는 시간이 무관련조건에 비해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본용언의 경우, 용언의 의미가 목표점화단어를 어휘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보조용언의 경우 그러한 점화효과(priminf effect)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보조용

언어로 쓰일 때는 무관련조건이 관련조건보다 어휘판단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는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의 용언의 기본의미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실험1과 비교했을 때, 보조용언을 처리할 때 정상인과 다른 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와는 달리 명칭성 실어증 환자 SDK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그림4>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4> 명칭성 실어증 환자 SDK의 용언관련 어휘판단시간(ms)

<그림4>를 보면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와 달리 본용언과 보조용언 모두 관련 조건에서 어휘판단시간이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상인과 비슷하게 보조용언에서도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된 것이다. 그러나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어휘판단시간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보다 다소 긴 것은 그러한 활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동일한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본용언일 때와 보조용언일 때, 관련조건에서 어휘판단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조용언일 때 불안정하게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성 실어증 환자에 비해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2를 통해 이해성 실어증 환자와 명칭성 실어증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처리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우선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이 보조용언을 처리하는데 이는 단어에 대한 정보는 파

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별단어를 떠올리는데 장애를 보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단어의 의미정보, 품사정보에 대해서는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 단지 정상인에 비해서 보조용언에서 기본의미가 낮게 활성화된 것은 그러한 정보가 다소 불안정하게 저장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본용언에 비해 보조용언의 정보 처리가 정상인과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가 정상인과는 달리 단어의 의미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상인이나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단어를 보면 그 단어와 관련된 의미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이후에 문맥에 영향을 받아 특정 의미만 빼고 나머지 의미가 소멸되지만, 이해성 실어증 환자는 단어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문맥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각각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되는 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상인의 정보처리와 실어증 환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1에서는 같은 용언이 본용언을 쓰인 문장과 보조용언을 쓰인 문장을 읽고, 단어의 기본의미와 의미적 관련을 맺고 있는 목표자극단어를 읽고 어휘판단하는 과제를 준비하였다. 이때 SOA를 150ms와 1000ms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문장을 읽고 바로 떠오르는 의미와, 시간이 지연될 경우 떠오르는 의미가 동일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SOA가 150ms인 조건에서는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도 본용언의 의미가 활성화되었지만, SOA가 1000ms일 때는 본용언의 의미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보조용언을 쓰일 때도 일차적으로 본용언의 의미가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조용언과 본용언은 심성어휘집에서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보조용언의 의미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본용언의 기본의미를 경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국어

의 보조용언은 일차적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갖고, 이 어휘적 의미가 문맥에 의해 추상적 의미로 바뀐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조용언의 의미는 용언의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가 보조용언을 처리하는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단어의 의미 정보에 대해서는 손상을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해성 실어증 환자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명칭성 실어증 환자에 비해 길고, 단어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상인에서 SOA가 1000 ms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이 뇌손상 환자의 언어장애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언어 사용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언어 재활에 관련된 진단 도구, 재활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어의 동음이의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될 수 있다. 즉 동일한 형태를 가진 어휘를 처리할 때, 형태정보와 문맥정보 중에서 어떠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휘 사이에서도 본용언과 보조용언과 같은 방식으로 어휘가 처리된다면, 심성어휘집에서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처리되는 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 博士學位論文.  
 김성화(1990). 「현대 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1-133.  
 김지은(1990). "도움움직씨 '(-아-) 버리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 「한글」 207, 125-150.  
 김홍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특성." 「관악어문연구」(서울대) 8, 157-190.  
 류시중(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원형이론적 접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형익(1989). "동사 '주다'의 3가지 용법." 「한

글」 203, 143-163.  
 성낙수(1987). "이른바 도움그림씨 '싶다'의 연0구." 「한글」 196, 237-250.  
 손세모들(1994). "보조 용언의 의미에 관한 연구 -"두다/놓다, 버리다, 내다"를 중심으로." 「한글」 223, 107-129.  
 손세모들(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옥태권(1988).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서울: 개문사.  
 우형식(1986). "지각동사 '보다'의 경험과 추정." 「연세어문학」 19, 5-29.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3, 215-235.  
 이기동(1979). "조동사 "놓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3, 49-80.  
 정은정(1998). "보조용언 연구사." 「현대의 국어 연구사」 서울: 박이정.  
 황병순(1988). "국어의 복문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13, 23-45.